

##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

김문희\*

<차 례>

- I. 머리말
- II.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
- III.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의 기능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인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륙>과 <소현성록>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문 구성원의 인물을 평가하는 한담은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한담은 앞으로 읽어나갈 서사의 이해를 돕는 참조사항이 되고 이전의 서사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여 독서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게 된다.

남성 인물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표면적 서술의 이면에 새겨진 잠재적 목소리로 텍스트의 다성성(多聲性)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영웅호걸의 모습과 대현군자의 면모를 조롱하는 부차적 목소리는 기문 중심주의적 시각과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여성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과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증충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는 한담은 사대부가의 공처가 남편의 우스꽝스

\* 서강대 강사

러운 모습을 폭로한다. 이 한담은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상층 사대부 부부도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리얼리티를 재현한다. 이것은 사대부의 또 다른 현실적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현실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한담적 대화, 객관적 정보 제시, 가독성, 중층적 서술, 다성성, 보편적 삶의 제시, 리얼리티의 재현

## 1. 머리말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가문의 누대기적 서술과 복잡한 인물간의 갈등, 유사한 사건의 반복, 인물의 외면 묘사와 내면 묘사, 인물간의 장황한 대화, 편지나 상소문 등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국문장편소설의 분량을 확대하고 전 후편이라는 연작의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의 인물간의 대화는 주요한 사건을 전개시키고 갈등을 맺고 풀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문장편소설의 대화중에는 핵심적 사건의 전개와 관련이 없는 잉여적인 대화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대화양상은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혼인이나 생일잔치, 집안 어른께 드리는 문안 인사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때는 인물을 평가하기도 하고 과거사를 말하거나 일상사를 대화의 소재거리로 삼으며 가족 구성원의 웃음을 유발한다.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대화양상을 한담적 대화라고 명명하고 한담적 대화양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 한담적 대화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일정한 유형성을 띠고 반복되며

작품의 분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여 독자의 웃음과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국문장편소설에서 한담적 대화가 작품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한담적 대화가 서사내적으로 어떤 기능과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찬찬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 중에서 삼대륙이라는 제명으로 전후편의 연작형 형태로 창작되고 향유된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그 기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을 살피기 위해서는 많은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국문장편소설의 분량을 감안하고 논의를 보다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문장편소설에서 뚜렷한 한 계열을 이루고 있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로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대상 작품은 한담적 대화양상이 빈발하는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륙>, <소현성록><sup>1)</sup>이다.

지금까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담적 대화양상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으나 정창권<sup>2)</sup>은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를 논의하면서 대화체에 주목하였다. 정창권은 <소현성록>의 대화체에 주목하여 <소현성록>이 말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1) 본고에서 인용하는 작품은 장서각 소장본인 18권 18책 <현몽쌍룡기>(『장서각소장 고소설 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와 서강대 소장본인 40권 40책 <조씨삼대륙>, 이화여대 소장본인 15권 15책인 <소현성록>이다.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륙>은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이고 <소현성록>은 4개의 이본이 존재하지만 <조씨삼대륙>이라는 제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서문과 필사후기가 첨부되어 있는 이대본을 대상으로 한다.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륙>은 각각 전편과 후편의 연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소현성록>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명 아래 1권에서 4권까지는 <소현성록>이, 5권에서 15권까지는 <조씨삼대륙>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도 각각 전편과 후편의 연작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1998.

여성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담을 빈번하게 수용하여 일상어에 공식적 가치를 부여하고, 사건전개에 있어서 대화체를 통한 극적 형식을 창출하여 여성주의적 성격을 표출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한길연<sup>3)</sup>은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을 논의하면서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으로 ‘여담의 기법’, ‘모두(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반복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완월회맹연>에서는 나타나는 여담적 텍스트는 본래 진행되던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관조하면서 주인공의 행위에 눈을 거는 유희 공간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도록 하며 메타 담화적 성향을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일정 정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여담적 텍스트는 역설적이게도 별반 연관 없이 진행되던 사건을 한자리에 묶어주는 ‘매듭짓기’의 기능을 통해 사건의 느슨한 결합을 꺾는 대하소설 특유의 결합 기법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한담적 대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서사내적으로 어떤 기능과 의미를 지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장편국문소설에서 핵심적 사건의 서술에만 주목하여 그 서사적 지향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각과는 달리 잉여적이고 주변적인 우스갯소리로 인식되는 한담적 대화양상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행간에 잠재되어 있는 서술의식을 본격적으로 찾는 시각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 II.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

3)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제36집, 2005.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는 남성 주인공의 혼인날이나 부모의 생일, 집안 어른께 드리는 아침과 점심 문안 인사 때나 규방 여성들의 모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한담적 대화는 격식적이고 공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비격식적이고 사적인 대화로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형태를 띠며 농담과 조롱, 비속어와 욕설 같은 언어도 종종 동원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웃음은 표면적으로는 가문의 화합과 결속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는 주로 1) 가문 구성원의 인물 평가하기 2) 남성 인물의 과도한 행위 조롱하기 3)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 노정하기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 1. 가문 구성원의 인물 평가하기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며느리나 자손의 성품과 미모를 평가하는 한담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한담은 자식의 혼인날이나 여성들의 모임에서 자주 벌어진다.

(㉠) 양쇼저는 찬난흔 광치 빅일이 등턴의 빗겼고 괴품이 유연이 청슈의 잠겼는듯 빅설궤흔 괴부는 명월궤고 조코 맑으미 빙청옥결궤호여 아름다운 냥안이 녕치 동인흐시고 추월궤흔 아미 팔치 어리엿시니 어엿븐 거동과 작터 선빙이야 엿지 다 니르리잇가마는 비컨대 덩쇼저는 춘일이 온화흠 궤고 양쇼저는 동일이 드스흠 갖고 조코 맑기는 양쇼제 승어 덩쇼제오 화궤 우희 염죽흐고 풍안흐시믄 덩쇼제 승어 양쇼제시니 그 인품이 또 그러흐실디라 양쇼제 녕업흐신 거동이 말 부치기 어렵고 단똥흔 우의 침묵흐시믄 양쇼제 나오실 듯 흐시디 대신 접믄의 화궤 빅물이 회성흠 궤고 사궤이 붓궤고 싣로기는 덩쇼제 나오실 듯흐니 천첩으로뻘 두 쇼저 신하되라흐면 가히 덩쇼저궤로 가리이다 좌위 대쇼흐고 화궤의 논견이 진짓 명달흔 말이라흐더라 티부인이 쇼 왈 여언이 올커니와 나의 두 며느리 다 고히 업스니 덩이 네

스기여 웃고 말호여 보왓시니 화괴를 낫다호고 양으는 처음으로 보매 기쁨이 맑고 높흐니 즈연 녕엄호여 뵈나 엇지 화괴 적어 뵈리오 조시 등이 진짓 골오더 신뵈 엇지 혼 흥이 업스리오 당시는 어리눅고 프러지니 더스의 강단이 업슬 거시오 양시는 보기의 녕엄호고 교우호여 뵈니 받드시 구가를 압두 홀가 두리느이다 티부인이 즐왈 너희 엇디 망녕도이 나의 천금 낭부를 업는 흥을 지어 남을 들니는다 덩으는 유헌호 등 옥긋흔 심장이오 양아는 외피 비록 찬돌 긋흐나 니심이 천연 온순호여 비컨디 스군즈 긋흐니 엇디 박헝 스틱이 낫브미 이시리오 너희 각" 선도 교우호니도 있고 이완호고 어리눅은 것도 이시니 엇디 남을 시비호리오 소괴 어렵다호를 오늘 알괘라 (<현몽쌍룡기> 3권 37~41면)

위의 예문은 <현몽쌍룡기>의 조성의 아내 양씨가 조씨 가문으로 혼인하여 들어오는 날 조씨 가문의 여인들이 태부인을 모시고 한담을 나누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조씨 가문의 태부인과 며느리인 위부인, 서모인 화씨, 이씨, 영씨와 조씨 가문의 딸들과 양씨를 중매했던 양씨 등이 모여 있다. 규방에서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서모와 시누이들이 조씨 가문의 두 며느리인 정씨와 양씨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 한담에서 좌중의 웃음은 두 번 일어난다. 서모인 화씨가 정씨와 양씨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열거하고 비교하며 두 사람이 막상막하지만 자신에게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의 신하가 되라고 한다면 정씨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정씨와 양씨가 모두 훌륭할 것이라는 말을 기대했던 좌중은 정씨가 인간적인 면에서 더 온화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화씨의 말에 웃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후에 시누이인 조씨 가문의 딸들이 화씨의 말에 이어 일부러 정씨와 양씨의 장점을 오히려 헐뜯자, 태부인은 올케를 낮게 보는 시누이들을 향해 세간에서 시누이가 어렵다고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자 좌중이 또 한 번 웃게 된다.

이 한담 장면에서 웃음은 인물을 낮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웃음은 두 며느리의 인품이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격하하여 작품 속의 인물과 독자가 공모하여 인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족 구성원이 새롭게 시집오는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들뜬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한담은 화씨와 시누이들의 입을 빌어 정씨와 양씨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표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양씨는 ‘겨울날이 따스함’ 같고 ‘냉엄한 면’이 있어서 ‘보기에 냉엄하고 교만하여 반드시 시댁의 많은 사람을 누르고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으며, 정씨는 ‘봄날이 온화한 것’처럼 ‘온화한 면’이 있으나 ‘어리석고 풀어지니 큰일에 강단이 없을 것 같다’며 꼬집어 말하는 것이다. <현몽쌍룡기>에서 남성 주인공인 조무와 조성이 대조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는 것처럼 정씨와 양씨도 공통적으로 이름답고 뛰어난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각기 대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인물 평가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담은 독자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사의 흐름 안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성격을 다른 인물의 말로써 정리하고 평가하여 인물의 특징을 독자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현몽쌍룡기>의 후편인 <조씨삼대륙>의 며느리와 손자를 평가하는 장면이다. 명윤과 여소저의 혼인날이 다가오자 명윤의 첫 번째 부인 한씨가 태연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남편의 혼례복을 만들자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한씨의 행동을 칭찬하며 한담을 나누게 된다. 한씨에 대한 칭찬에 뒤이어 조씨 가문의 며느리와 자손들에 대한 품평이 이어지게 된다.

(ㄴ) 이씨 진왕 부즈의 화괴 우희염죽허더니 초공의 칭호호물 바드니 더욱

깃그물 이기지 못하여 회연 쇼왈 나의 총부 쇼시는 녀중 현재러니 손부 한시  
 녀중 디성인이라 며느리 죽히 그 식어미 후를 니을지니 엇지 오문의 경시  
 아니리오 조부인 등이 쇼왈 한시 비록 화기를 가져 가부의 길기를 섬기나  
엇지 즐거운 일을 호노라 실노 질기리오 비록 공순 유덕이나 명을 순하고  
분디 마음이 덕을 일치 아니코 녀자의 도리와 령치를 아는 일이라 흐려니와  
 그러나 양평의 화란을 지니지 아니호였고 평안흔 시절의 위의 좃친 지실을  
 어드니 그 례를 아는 녀지 스식이 이신들 구타여 삼되의 괴특다 호고 칭호른  
 아지 못호리로쇼이다 진왕이 쇼왈 나의 손부로써 금일 거조로 괴특다 호는  
 거시 아니라 원니 기량이 텃디오 기심이 하히라 명윤이 니조로 힘입어 정도  
 의 도라가 여러 처첩을 두어도 문왕의 사시와 흡스호리니 엇지 그 식어미로  
 의논호리오 중인이 디쇼호고 조시 등이 일장을 닷토니 정숙렬이 쇼왈 발서  
 머리의 빅스를 드리올 씨의 쇼년 신인이 드러오는 날마다 우리 등의 림을  
 너모호기로 지리호니 저저 등은 그만호여 그치쇼셔 며느리 디디로 나으량이  
 먼 문호의 디경이라 저저 등 저긋치 착급호여 호시미 도로혀 고이호니이다  
 화영설 삼핀 팔홀 썸니여 다르드러 이다라 닐오더 우리 양정 두 부인기는  
 천만고의 일너도 업슬 거시니 한쇼져와 공췌신들 엇지 나으리잇고 양정 두  
 부인의 얼굴을 디호여 저드도록 관경호여도 빅터 재미호와 한 곳 하즈홀 곳  
 업스니 우리 노인의 눈의는 양정 두 부인기는 당호리 업스니이다 위부인이  
 쇼왈 너의 삼인의 말이 과연 올타 호더라 초공이 쇼이더왈 스정의 가리와  
 그리 알오시나 명천의 부즈로 의논호미 얼굴풍신이 닳다홀 거시 업스디 그  
 온중흙과 만시 완전호미 제 아버지 승호미 이시니 닐오미로쇼이다 조노공이  
빅슈를 어르만져 회연 쇼왈 명천이 비록 괴특호나 그 아버에게 성호 일  
무슨 일이뇨 너 쇼견의는 장부의 위풍과 영웅의 기상은 오히려 승어뷔어라  
터부인이 쇼왈 너는 네 손즈를 닳게 너기나 너 쫓은 명천의 한아버 최승호가  
호노라 중인이 디쇼호고 맛당호시물 일컫더라(<조씨삼대록> 31권 51~56면)

이 한담에서 웃음은 두 번 일어난다. 진왕(조무)이 며느리 소씨와 손자  
 며느리 한씨의 사람됨을 칭찬하자 진왕의 누이인 조부인들이 정숙렬(정

씨)과 양정렬(양씨)을 거론하며 며느리 소씨와 손자며느리 한씨가 정숙렬과 양정렬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자 진왕은 문왕의 비인 태사에 빗대어 손자며느리인 한씨를 칭찬하며 정숙렬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하자 좌중은 크게 웃는다.

또 한 번의 웃음은 초공과 조노공, 태부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손자가 가장 낫다고 자부하는 손자 자랑에서 일어난다. 초공은 아들 유현과 손자 명천을 비교하며 ‘얼굴과 풍채는 누가 낫다고 할 것이 없지만 조용하고 침착한 것과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유현보다 명천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자 조노공은 ‘명천이 유현보다 장부다운 위풍과 영웅다운 기상 정도만 낫다’고 하며 대현군자다운 면모에서는 유현이 명천보다 낫다고 하고 손자의 편에 선다. 마지막으로 태부인은 자신의 아들인 조노공보다 손자인 초공이 집안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하자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를 한다. 이러한 웃음은 가장 연장자가 제일 늦게 가장 유리한 자리를 점하면서 자기 손자를 최고라고 평가하며 다른 반론을 봉쇄함으로써 좌중에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한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내나 아들을 낮게 평가하고 손자며느리나 손자를 자식보다 높게 평가하여 대대로 손자에 대한 자랑을 드러내고 있다. 진왕의 입을 통해 한씨의 부덕(婦德)이 드러나게 되고 시누이인 조씨들에 의해 전편인 <현몽쌍룡기>에서 있었던 정숙렬과 양정렬의 화란이 언급되고 화씨, 영씨, 설씨에 의해 정숙렬과 양정렬의 이름다움이 칭송된다. 또한 초공과 조노공의 말을 통해 유현과 명천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거론된다. 이처럼 이 한담은 평가 대상이 된 인물의 장점은 물론이고 인물의 과거사나 단점까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독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ㄷ) 소시 답왈 셔모의 말슴이 올흐이다 연이나 데 달지 다 내의 아으만 못  
 하니 맛갑다 흐리로다 윤시 쇼왈 제이 즈라면 엇디 구티여 참정괴 디리오  
아직 어린 아히라 미기화로 풍화흔 거시 못 미츠나 구티여 나리디 아니흐리  
이다 석패 머리를 혼드러 왈 불연타 제공지 비록 아릅다오나 엇디 참정의  
쇼시적 얼굴의 밋츠리오 참정이 이에는 영풍이 쇠락하고 괴골이 쥬슈하여  
뵈고 즈티로운 거시 업사미어니와 쇼시적은 혼갓 고을만 아녀 즈티와 향괴  
어티여 즈연 사릅으로 하여곰 빼 식고 므음이 녹게 하던 거시니 이제 쇼공  
즈들이 관옥 꺾트나 엇디 미츠리오 화시 쇼왈 셔모의 참정 기리는 소리 너  
모 과도흐이다 사릅이 어려실 적은 약하야 즈연 즈티 잇느니 어느 아히 그  
러티 아널 거시라 참정이 독보흐리잇가 흐믈며 사릅이 보면 므음이 녹고 빼  
식더라 하니 괴뜩디 아나 해로운 얼굴이로소이다 좌위 일시의 웃고 왈 화부  
 인 말슴이 정합하다 혼대 석패 또흔 쇼왈 다른 부인은 밋디 아널시 올커니  
 와 쇼부인은 또흔 보와 거시니 아라실 거시어늘 엇디 내 말을 밋디 아니시  
 느뇨 쇼시 흡 "히 우서 왈 나는 정신이 불명하야 어제 일도 너거늘 더욱 쇼  
 시의 아의 얼굴이 엇던동 알니오 지삼 생각하니 2장 곱디 아녀 딜으 등만  
 못하던 듯흐이다 ..... 이 날 제쇼년 좌등이 양부인찌 고왈 화석소운 스위  
 낭지 칠공즈를 참정찌 낫다 하니 이 아니 꺾디 아닌 말이니잇가 첩은 니라  
 기를 칠공지 비록 투월하나 참정찌 썩러디다 흐되 쇼부인이 더욱 우기고 화  
 석 낭부인은 고디 듯디 아니시디이다 양부인이 쇼왈 너히 곱 "하야 흐미 즈  
 못 그러다 네 한설을 날회고 일언만 흐면 족히 두 식부와 두 녀으의 입을  
 막을났다 석시 문득 아라듯고 머리를 수겨 함쇼하고 석파는 씨뎡디 못하야  
 이윽 팀음하다가 흘연 대쇼왈 올코 묘하니 부인의 2라치시미 가하디라 제  
 낭지에 이제도 날과 정선하시라 쇼시 짐쫓 닐오더 므스 일 못흐리오 실노  
 달으는 아이게서 만히 나오니이다 석패 왈 그리면 화석 이 부인과 참정이  
션쳐스와 우리 부인도곤 나오셔 즈식을 잘 나하 거시니잇가 만쵸 무언대쇼  
 하고(<소현성록> 4권 43~47면)

(ㄷ)은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의 여인들이 모임에서 소현성과 그의 아

들 소공자들 중에 누가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소현성의 서모인 석파, 이파는 소현성이 소공자들보다 낫다고 칭찬하고 화씨와 석씨는 자신의 아들들이 남편인 소현성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누이들인 소씨와 윤씨는 은근히 울케들 편에 선다.

이 한담 장면에서 웃음은 세 번 일어난다. 석파와 이파가 소현성을 칭찬하자 윤씨는 조카들도 소현성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석파는 소현성이 ‘어릴 적에는 고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태도와 향기가 어리어 사람의 뼈가 시리고 마음이 녹게 하여 소공자들이 소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화씨는 남편 소현성과 같이 ‘사람이 보면 마음이 녹고 뼈가 시리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특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얼굴’이라고 하며 석파가 소현성을 칭찬하며 추켜세웠던 장점을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반박하자 좌중은 웃음을 터뜨린다. 이에 석파는 다시 소씨에게 소현성의 어릴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소씨는 일부러 소현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석파의 편을 들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석파의 상황이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양부인 앞에서 석파는 화씨와 석씨와 소현성이 죽은 소처사와 양부인보다 뛰어나서 자식을 잘 낳았겠냐며 말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자 또 한 번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진다.

이 한담 장면은 시어머니와 서모는 소현성의 편에 서고 며느리와 시누이가 소공자들 편에 서서 소씨 가문의 아들 자랑을 하는 것으로 이는 규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식 자랑의 성격을 띤다. 이 한담을 통해 소현성과 소공자들의 자질과 품성이 상세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소현성의 장점이 화씨에 의해 단점으로 평가되고 소공자들의 장점이 석파에 의해 별 것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한담은 소현성과 소공자의 자질과 품성을 드러내면서도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측근에 의해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러한 인물 평가는 표면적으로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지만 소현성과 소공자의 면모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도 한다.

## 2. 인물의 과도한 행위 조롱하기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군자답고 장부다운 성품과 행동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삼는 한담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한담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누이들이나 매형과 매제가 아우나 처남의 과도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일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한담을 나누는 인물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며 격하시키는데 여기서 웃음이 유발되고 작품을 읽는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현몽쌍룡기>의 조성과 매형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ㄷ) 옷 섬기를 맞춥매 안서히 물너나니 냥안이 나죽혀 거뵈 더보는 일이 업거늘 뉴혹시 웃고 갈오디 “스원의 거동이 삼일 안 신낭의 티도를 하니 대장부의 참아 었디 홀 배리오 고이호도다” 소상세 쇼 왈 “타시 아니라 활발호 거동을 하다가 양부인 눈의 날가호미라” 이러툃 보치디 엄연 단좌하여 미소 묵연이어늘 좌등 일반 제인이 막불칭선 이경이러라 소혹시 쏘 니르디 “도항간의 나면 업숙호 괴상이나 집의 들면 유약 소졸호 부인 곳호니 원리 양수를 무셔워 괴운이 그리 최찰호는도다” 소상세 다시 니르디 “무삼 일노 양수의게 득죄호였는나 흥미 쇼연호여 우리 등의 말을 귀에 담아 듯디 아닛는나” 태뵈 혼연 쇼 왈 “소형은 즈로 미저괴 득죄호여시매 즈기지심으로 쇼테를 괴롱호나 쇼테는 뼈 호디 부부지간은 군신 곳호니 녀지 득죄호가 두릴지언정 어니 장뵈 부인괴 득죄호가 두리리오 급일 행동의 언시 하 가쇼롭기로 쇼테 입을 다다시나 도로혀 생각 밧 말숨을 호시는도다” 뉴혹시 쇼 왈 “네 장호 테호거니와 만일 투한호 부인을 만나 스오나온 성을 발호여 너를 쓰어

두르고 칠디라도 마즈라” 태뵈 쇼 왈 “너즈의게 쓰어 들니고 마줄가 겹흐른 형의게 처음 듯느지라 우리 미저는 결단코 형이 아모리 잘못혀도 쓰어 두르고 치던 아니리니 어디 가 심히 마즈 본 말이로다” (<현몽쌍룡기> 12권 57~59면)

조성은 세 번째 부인인 윤소저와 혼인하는 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평소 때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다. 그러자 매형인 소상서와 유학사가 번갈아 가며 조성이 양씨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놀린다. 소상서는 조성을 가리키며 혼인날 기뻐하다가 ‘양부인의 눈에 날까봐’ 전전긍긍해서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하며 조성을 놀리고 ‘집에서는 유약하고 소졸한 부인네가 되어 양부인을 무서워하여 기운이 꺾이는’ 것이라고 희학한다. 유학사도 가세하여 ‘질투하는 사나운 부인을 만나 그 부인이 치더라도 맞을 것’이라고 조성을 조롱하며 조성이 아내에게 꿈쩍하지 못하는 공처가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현몽쌍룡기> 전체에서 조성은 침묵하고 단엄하며 온화한 성현군자의 면모로 그려져 서술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투영된 인물이다. 그러나 조성과 누이 사이의 한담이나 조성과 매형 사이의 한담에서는 조성의 이러한 면모를 균열시키는 언술이 종종 나타난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고 아내인 양씨를 보아도 못 본 체하고 부부의 정을 표현하지 않는 조성의 태도는 누이들과 매형들에 의해 심심찮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

<현몽쌍룡기>의 또 다른 남성 주인공인 조무는 호탕하며 풍류를 즐기는 영웅호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조성과는 대조적인 성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조무가 지나치게 한 부인에게 사랑을 쏟아 붓고 집착할 때 조씨 가문의 서모와 누이들, 매형들은 조무를 어리석은 인물로 치부하고 격하시키며 좌중에 모인 사람들과 독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조

무가 호탕하고 풍류스러운 성격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조성이 엄정하고 절제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고수할 때 누이와 매형이 이들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게 된다. 이러한 한담을 지켜보고 있는 독자는 호방함과 풍류를 발휘하여 감정적인 조무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절제된 조성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것은 후편인 <조씨삼대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여전히 조씨 가문의 누이들과 매형들은 진왕(조무)과 초공(조성)의 과거사를 들먹이며 이들을 조롱하고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四) 부피 두곳겨 왈 너의 삼인이 복녹을 남의게 스양치 아닐 거시로대 누셔량은 희첩이 만코 쇼셔량은 지실이 이시니 석셔량은 온전흔 복녹을 당치 못히리니 두 으히를 네 다 입히라 쇼부인이 대쇼 왈 희첩은 남즈의 상시라 흘몰며 복녹의 흠이라 하시니 원억히이다 석저의 양양즈득히미 이다라니 나도 흔 아히를 입히리라 진왕이 쇼왈 좌중의 유복기는 우리 원비 웃듬이라 충충흔 즈녀와 영요흔 복녹이 남의게 지지 아니리니 석년 쇼쇼 익경은 부운이라 군왕의 원비로 존중흔 위의 엇지 저저 등의게 비히리오 석뉴쇼 삼형이 저저 등을 중대히시나 나의 정비 대접 곳티리오 좌위 박쇼하고 태부인이 쇼왈 네 말이 유리히도다 석부인이 웃고 니러나 기현의 오솔 입히며 왈 네 부인만 유복다 기리니 내 분한히여 입히리라 중대히다 히나 대쇼스의 심풍흔 호령 만히니 나는 그런 거동 보지 아녓노라 제인이 대쇼하고 진왕이 미쇼왈 호령도 밧들가 시블시 밧지 슈치도 곳칠가 시블시 히엃느니 석형이야 저저 장년의 쥬여 마음대로 부리시며 즈칭 유복다 하시니 쇼데는 흥혀 아들이 석형 곳틀가 스외로와 히는이다 쇼상셔 부인이 니러나 유현의 오솔 입혀 왈 유복지 못히나 입혀 두고 보리라 석부인이 왕을 꾸죽고 남뎨 스인이 회히히니 조공이 두곳겨 도라보니 초공이 다만 공슈단좌히여 다만 눈을 닷초와 만면 화괴뿐이라 부형 면전의 경군지혜 가득히니 노공이 쇼왈 오늘 여형과 여

매 회화로 우리의 웃기를 도오대 너는 엇지 찬조흐미 업노 초공이 니러  
 비사 왈 희이 본대 구변이 업습고 존전의 희롱이 황공호여 승안화괴를 일스  
 오니 불민토쇼이다 석상셔 등이 쇼왈 스원이 원내 말이 드물거니와 양윤왕  
삼슈슈 면전은 더욱 저러흐니 부잡호여 부인괴 득죄홀가 두리미로다 승상  
 이 역쇼 무언이라 (<조씨삼대륙> 1권 95~99면)

(마은 진왕(조무)과 초공(조성)의 아들인 기현과 유현이 혼인하는 날 고  
 모듈(누이들)이 이들의 혼례복을 서로 입히려고 자신의 복록을 내세우며  
 다투는 부분이다. 첩과 재실이 없는 석학사 부인이 복록이 제일 많은 것으  
 로 간주되어 기현과 유현의 혼례복을 입히게 되자 진왕은 자신의 아내인  
 정숙렬이 남편의 극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가장 복록이 많은 사람이라  
 고 말하며 아내 사랑을 한다. 그러자 진왕의 누이인 석학사 부인은 ‘네 부  
 인이 중대하다고 하지만 대소사에서 정씨에게 무성하게 일어나는 호령이  
 많으니’ 자신은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 진왕의 말에 반  
 박한다. 석학사 부인의 말에는 과거 진왕이 정숙렬을 편애하다가 금선공  
 주의 계략에 빠져 정숙렬을 박대하고 제가(齊家)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  
 리석음에 대한 질책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진왕은 자신이 정숙렬을 극진  
 하게 대우하여 그 복록이 비교할 곳이 없다고 하며 좌중에 떠벌리지만, 석  
 학사 부인은 진왕이 과거에 정숙렬에게 과도하게 행동했던 잘못과 현재는  
 지나치게 아내를 후대하며 좌중에서 사랑을 하는 태도를 비난하며 못마땅  
 해 하는 것이다.

또한 매형인 석학사는 누이와 진왕이 한담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조용  
 히 웃음만 띠고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는 초공(조성)을 향해 희롱하는 말  
 을 건넨다. 초공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 없는 것은 ‘양씨, 윤씨, 왕씨 세  
 명의 제수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초공이 곁으

로는 침중하고 단엄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며 좌중의 웃음을 유발한다. 늘 부모를 모시는 자리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고 점잖게 앉아 있는 초공의 행동을 석상사와 여러 매형들은 못마땅해 하며 초공의 근자다운 모습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형과 처남 간의 한담은 <소현성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 이때 소상세 혼 가지로 좌의 이시디 혼 말도 아니코 제인의 환쇼호를 보매 단순의 옥치를 비취여 간〃 이 미쇼호니 어시 그 손을 잡아 양부인찌 주 왈 이제 악되 비록 신부를 드려 올디라도 이대도록 단정호는 테호는 신부는 업스리이다 즈문아 네 도당의 가셔는 상활호고 숙업호미 전혀 이러티 아니더니 엇디 집의 이셔든 이대도록 소졸호노 상세 바야호로 잠간 희롱 왈 어느 사툼이 형긋티 부모 안전의는 모진 기운을 비양호고 거관호야 하인의 게란 축척 공순호미 이시리잇가 어시 무장 대쇼호고 다시 널오디 네 이제 공순호른 이시리니와 이수찌 굴복호도 가호냐 나는 처스의게 숙업호미 상설 ㄱ툄와 상세 더왈 쇼테는 본디 용졸호야 거가의 불엄호거니와 더적 운취 각의셔 미져찌 빅만 청죄호느니 용셔호라 비르시니 아디 못게라 그 적은 상설이 노갓더니잇가 좌위 일시의 박쇼호대 어시 그 등을 터 대쇼 왈 네 진실로 내의 취졸을 점〃 나타내노도다 널로 더브러 말을 결우다가 내의 전정이다 모함호리니 다시 아니리라 (<소현성록> 2권 87~88면)

소현성이 세 번째 부인 여씨를 맞으러 여씨 집안으로 떠나는 날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숙엄하게 앉아 있자 매형인 한어사는 소현성을 가르켜 ‘신부를 데리고 오더라도 이토록 단정한 체 하는 신부는 없을 것이며 집에 서는 왜 이렇게 소졸한지’ 의문스러워한다. 그러자 소현성은 한어사를 빗대어 ‘부모 앞에서는 모진 기운을 드러내고 관직에 임해서는 아랫사람에게 조심해서 걷고 공손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겠냐’고 하며 공격한다. 이

말에 한어사는 ‘두 명의 제수에게 굴복함도 옳은 것이냐’며 소현성의 숙엄하고 도덕군자 같은 태도는 화씨와 석씨 두 부인에게 끔찍하지 못하는 공처가라서 그런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소현성의 단정한 행위를 비웃는 한어사의 말에는 지나치게 법도를 숭상하고 이성적인 소현성의 행동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실려 있다. 모든 면에서 침중하고 의연하며 단정한 소현성의 행동은 풍류량인 한어사의 시각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인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어사는 우스갯소리로 소현성의 행동을 과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소현성록>에서 서술자는 소현성을 정현군자의 면모를 체현하는 인물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 역시 소현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소현성의 단엄하고 대쪽 같은 성품은 부인인 화씨나 석씨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소현성은 ‘찬물의 돌 같이 너무 견고하고 장부의 풍채가 없다’거나 ‘도학선생으로는 으뜸이지만 풍류낭으로는 말자’<sup>4)</sup>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것이다. 소현성의 정현군자다운 행동을 비난하는 한어사의 말도 이런 소현성의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다. 독자 역시 소현성과 한어사의 한담을 통해 매사에 단정하고 엄숙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소현성의 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소현성록>에는 군자 의연한 소현성과 대조되는 인물로 풍류량인 소현성의 아들 운성이 등장한다. 운성은 호탕하고 풍류를 즐기며 영웅의 기질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감정적이고 성급한 행동으로 형씨를 편애하여 명현공주와 갈등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형씨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소현성록>에는 이러한 과도한 행위를 하는 운성에 대한 조롱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소현성록> 9권 39면과 40면에서

4)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2005, p.45.

석파와 운성이 나누는 한담에는 석파가 운성의 이러한 과도한 행위를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석파는 세 달 동안 천하 유람을 갔던 운성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에게 홀린 일과 청주의 다섯 창기와 즐긴 일을 조롱하며 운성의 행동을 문제 삼는다. 이처럼 인물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대현군자와 영웅호걸적인 남성성의 의미를 독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소현성록>의 대부분의 서사에서는 대현군자와 영웅호걸적인 남성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려 내지만 우스갯소리를 나누고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면서 큰 의미 없이 서사의 긴장을 이완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담에서는 대현군자와 영웅호걸적인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남편과 가장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 노정하기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한담적 대화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인 누이나 매형, 매제 등의 전도된 부부 관계를 들춰내는 경우이다. 이 한담은 주인공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사의 핵심과는 더욱 동떨어져 있는 잉여적인 우스갯소리이다. 여기서는 매형이나 매제, 사촌의 공처가 기질이나 이들의 아내에 대한 집착과 바람등이 기질과 같은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면서 웃음이 터지게 된다.

(사) ① 청취 소왈 쇼데 즈소로 허언을 아닛느니 팔구년 전에 저데 병이 계 시미 보라가니 형이 저더의 칩소로 나오며 불을 구르며 눈물을 흘녀 왈 사 룡을 솔오소서 호고 녕대인이 엇덜터니 무로신즉 목이 메여 답지 못흐시논 양을 보니 그씨 우환 둥이나 하 가소롭던 거시미 닛지 못흐올너니 오날이야

발설하느니라 뉴혹스 소상셔는 박장대소 하고 석혹시 꾸지져 왓 십년이 장  
 즉 형스지니 내 으희와 년치 상적하거든 감히 허언으로 날을 보치느노 요스  
 히 으희들이 뜻과 말이 미시 곳트야 벼슬이 높으면 어른을 모르니 엇지 한  
 심치 아니리오…… ② 이찌 초휘 제인의 유희를 드르미 일언을 간에히미 업  
 더니 뉴혹스의 말을 듯고 닐오디 ……소데 녹칠년 전에 벽셔당에 저더를 보  
 오라 드러간즉 뉴형이 저더기 복슈 익걸 왓 천만죄를 청하느니 현쳐는 식노  
 하라 내 청취 이창을 금일노 너여 보니고 부인의 뜻을 스스언청하리니 사죄  
 하라 비는 소리 쓰지 아니커늘 소데 하 가소로와 문 밧긔서 소리하니 형이  
 웃고 즉시 나오더이다 죄위 박소하고 일시에 뉴혹스를 괴롱 왓 무스 일노  
 그리 청죄한다 스원이 본디 허언을 아니하느니라 뉴혹시 역소 왓 스원이 엇  
 지 거긔말을 아니리오마는 내 허물을 닐오고즈 하나 네 누의 부덕을 닐오미  
 로다 내 비록 용널흔들 네 누의 정순흔 덕이 이시면 가부롤 그 거동을 식이  
 고 누어시라 초휘 소 왓 저더도 올치 아니시고 형의 거동도 장부의 괴습이  
 아니러이다 내 압히 그런 사람이 남의 흉을 아니 하염죽하이다 (<현몽쌍룡  
 기> 15권 42~47면)

(사)은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이 자신들을 희롱하는 매형인 석학사  
 와 유학사를 향해 매형들의 공처가 기질을 드러내며 그들을 공격하는 부  
 분이다. ①은 조무가 자신을 놀리는 석학사를 향해 석학사의 공처가 기질  
 을 말하는 것이고 ②는 조성이 자신을 놀리는 유학사를 향해 유학사의 공  
 처가 기질을 폭로하는 것이다.

조씨 가문의 식구들이 공모하여 조무를 놀리기 위해 정씨가 죽었다고  
 하자 조무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한다. ①에서 석학사  
 는 이런 조무의 모습을 보며 심하게 놀리자 조무는 8,9년 전에 누이의 병  
 문안을 갔을 때 ‘누님의 침소에서 나오며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사람  
 을 살려달라고 울던’ 석학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하며 가소로웠다고 말  
 한다. 조무의 이 말은 석학사가 의연한 장부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의 작은

병에도 어쩔 줄 몰라하고 걱정하는 못난 졸장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매형인 유학사 또한 양씨 집안에 가서 양씨가 죽은 줄 알고 울었던 일을 거론하며 조성의 가소로운 행동을 말한다. 그러자 조성은 ②에서처럼 유학사가 창기 때문에 누이에게 잘못을 빌던 일을 사람들 앞에서 발설한다. 남편이 창기와 즐겼다고 해서 아내에게 머리를 숙이고 애걸하면서 잘못을 비는 유학사의 행동은 체통을 지키며 호령하는 장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창기를 탐하는 남편의 행동을 투기하며 몸져 누워버린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유학사의 모습은 당대의 일반적인 사대부가의 가부장적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전도된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된 부부 관계는 당대의 상층 사대부가의 다양한 부부 문제를 폭로하고 독자에게 새로운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은 <조씨삼대록>의 남편 철생이 아내 후염에게 맞고 처가인 조씨 집안에 문안 인사를 오자 조씨 형제들이 철생과 나누는 한담 장면이다.

(6) 왕이 짐작고 문왈 네 낮치 저러듯 상하엿시니 무슨 연피노 철사인이 더욱 면홍하고 즈저하다가 탄식 왈 쇼성이 악장의 지우하시물 닙스와 실노 범연흔 정성과 다룬디라 닙네 비록 무상하나 저바릴 뜻이 업습더니 닙녀의 투악이 충출하여 쇼셔를 만단구욕하고 적인을 받검 격살코져 홀 뿐이 아니라 쇼성의 낮출 무심 등 거러굽으며 타협하기를 기탄업시 호오니 여츄 히변은 불가스문어년국이라 쇼제 차마 일실의 처하디 못호와 작일의 도라보니 읍고 금일의 조참을 폐호오디 이의 나아오른 츄스로써 악당과 아니 고티 못호올디라 붓그리오물 참고 니르미니이다 제인이 이 말을 드르매 우읍기를 이기디 못호여 일시의 우으니 …… 윤현 왈 네 이제는 머리의 관을 벗고 돈나라 사람이 었디 녀즈의게 뺨을 맞고 돈니리오 영현 왈 그러하나 죽으리오 부절업스 말을 도” 디 말나 그러도 닙형이 호엿도다 만일 결장호는 거죄 잇

더면 더욱 엇디허리오 몽현 왁 출하리 타둔호는 거시 나홀 거술 등목 쇼시의 저 얼굴을 들고 나니 가히 담 큰 사름이로다 철생이 흥 업슨 말의 제조 등의 희롱이 괴롭고 뉘우쳐 잠쇼 왁 황상의 위엄으로도 태후의 농테를 상히 와시니 흐물며 녀염 용부를 니르리오 너의 누의 피항이 한심히지 니야 한곳 슈괴하다 무습 대단허리오 능휘 정식 왁 너희 옥하 스람이 감히 군상을 거드리 떼면을 손상허리오 아미 피시 붓그럽거니와 너도 팔척 당부로 저더도록 뜻기른 잔약허미라 오가의셔도 누의 죄는 다스리려니와 너도 도라가 장부지항을 일치 말나 (<조씨삼대륙> 16권 28~33면)

원래 성격이 악하고 질투심이 강한 후염은 철생이 유씨와 침소에서 한가롭게 이야기하자 유씨를 질투하며 칼을 들고 유씨의 침소로 들어간다. 후염은 철생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인 철생의 뺨을 마구 때린다. 철생이 조씨 가문에 문인인사를 하러 왔다가 이 사실을 말하자 진왕과 초공, 기현과 유현 등 조씨 가문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유현은 ‘여자에게 뺨을 맞고 다니니 관을 벗고 다니라고’하며 철생을 조롱하고 영현은 ‘후염이 매로 때렸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비웃고 몽현은 ‘차라리 볼기를 맞는 것이 나아겠다’고 하며 ‘밝은 대낮에 저런 얼굴을 들고 나온 것’이 대단하다고 하며 철생을 놀린다. 유현과 영현, 몽현은 후염에게 얼굴을 뜯기고 온 철생을 조롱하며 아내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철생의 나약하고 용렬한 공처가의 모습을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철생은 조씨 형제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인종이 곽황후에게 얼굴을 긁힌 일을 거론하며 황제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비하면 자신의 일은 별 것 아니라고 하자 유현은 철생에게 이 말은 임금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꾸중한다.

이처럼 <조씨삼대륙>에는 위로는 임금도 황후에게 얼굴을 긁히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여과되지 않고 드러나고 철생과 후염 같은 사대부가의 부부

사이에 남편이 부인의 완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이 거침없이 폭로된다. 곧 황실과 상층 사대부 부부사이에 아내가 남편보다 상위에 서서 군림하는 부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들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스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음은 <소현성록>에서 양상서의 아들 양현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자 소씨가 사촌들인 양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내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비웃는 부분이다.

(자) 양생 등 십여 인이 버러시되 감히 참정을 안함으로 못허야 다 놓흔 스승갓티 공경허디 참정이 조곰도 교중흔 빗치 업서 공경허고 스랑허야 사름으로 허여곰 정이 뉴출허나 쏘흔 두려허게 허는디라 양공의 형데 불승탄복 허야 닐오디 너 곳 디허면 우리 몸이 즈연 도라보아 슈련허이고 네 말을 드르면 성교를 디흠 갓티니 실노 공명의 후신 곳 아니면 이러티 못허리라 …… 소시 닛드라 우어 왈 경의 츄스흠도 가허고 숙부의 기리심도 밍냥티 아니허거니와 오직 여러 양형이 오늘 석상의셔 녀치를 다 닛고 자기 부인들을 빼와 브라니 생각건대 혼인허연 디 십여 년이나 혼디 새로이 둥회둥 브라미 고이허야 허디니 모형의 (모시는 양상셔 츄뵈오 장원의 처) 말을 드르니 저 거게 본디 부인을 모든 둥이면 본디 허니 이 반드시 요스이 별 네문을 다 그디 둥이 흥허는가 시브다 좌둥이 다 대쇼왈 현미 우리를 놓허미라 연이나 한싱도 단정티 아니커늘 현미의 말이 엇디 쾌허노 소시 낭쇼왈 한싱의 단정브정은 내 모르거니와 대강 눈은 성허야 병 드디 아나시므로 혼 번 본사름은 다시 보디 아닛느니라 제싱 왈 우리도 눈이 병드디 아나시되 부인을 본 적마다 새로워 눈을 세왔디 못허노라 소시 왈 그러티 아니타 부뵈랏 거시 엇디 구투여 얼골만 브라 보리오 흥실을 슬퍼 보고 지덕을 보아 공경홀디라 숙부와 숙뵈 우히 겨시거늘 무례히 브라보아 아득히 정신을 일흐미 의 심컨대 늬의 소견도 엄부 피신 사름갓디 아니코 썩아니라 거” 둥이 쏘흔

쳐조 바라보기 겨를 업서 부모의 쇠노혹심도 모르리로다 모다 손벽 터 대쇼  
 왈 미량은 진실노 허무흔 사름이로다 사름의 업슨 허물을 지어 논박흐미 참  
 혹흐니 험흔 인물이라 화석 냥 수〃는 더긋티 사오나온 쇼고를 엇디 더접흐  
 시느니잇가 소시 냥〃이 웃고 화석 이인이 또흔 함쇼흐더라(<소현성록> 4권  
 68면~70면)

소씨는 사촌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아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켜 ‘요사이 유행하는 새로운 예법을 행하는 것이냐’며 사촌들의 행동을 조롱한다. 소씨는 ‘부부란 것이 항상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재주와 덕을 살펴보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촌인 양생은 소씨의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내를 볼 때마다 새로워 눈을 떼지 못 한다’고 응수한다. 이와 같은 양생의 응수는 물론 농담이 섞여 있는 것이지만 어른들 앞에서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엄숙하고 단정하며 군자다운 소현성과 활달하고 거리낌 없는 양생의 행동을 대조하여 소현성의 도덕군자다운 모습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지만 굳이 핵심적 서사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양상서의 아들 양현의 장원급제 축하연에서 장황하게 한담을 나누면서까지 소현성의 도덕군자다운 모습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본 이야기 줄기와 관계가 없는 소씨와 양생 형제의 한담은 부모 앞에서 예의범절을 지키며 정숙해야 하는 사대부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집착하고 이것을 비난해도 거리끼지 않는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주인공 부부가 보여주는 규범적인 부부의 모습과는 다른 당대의 현실에서 있음직한 상층 사대부 기문의 또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Ⅲ.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의 기능

#### 1. 객관적인 정보 제시와 가독성(可讀性)의 고양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문 구성원의 인물을 평가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한담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가문의 화합을 표현하고 번성을 도모하는 장치로 개입된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혼인날이나 정례적인 모임에서 이러한 한담은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이때 핵심적인 서사의 진행은 중지되고 서사의 주된 흐름에서 한발 물러서서 휴지를 마련하게 된다. 독자는 많은 사건의 다기한 갈등이 일으키는 긴장을 풀고 이 한담을 지켜보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한담을 지켜보는 시간동안 독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될 때보다 관조적 자세를 취하며 긴장을 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한담이 서사내적으로 급박한 사건 전개에서 얼마간의 휴지를 마련하여 독자의 긴장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서사내외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거나 앞으로 읽어나갈 전 후편 연작인 장편국문소설의 인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게 된다. 가문 구성원의 인물을 평가하는 한담적 대화는 주로 여러 세대가 모여 가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며느리나 세대별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손들을 폄평하는 것이다. 한 가문에 시집오는 며느리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복잡하게 진행될 사건보다 앞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며, 세대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손에 대한 평가는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사의 흐름 속에서 독자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인물의 객관적인 면모를 상기시키게 한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한 작품만 보더라도 수십 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창작되며 서사의 내용은 복잡다기하여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특히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전 후편의 연작 형태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서사 내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사건과 그 사건을 만들어 가는 인물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독자가 한 편의 장편을 읽거나 더 나아가 전 후편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서사 내용과 인물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문 구성원의 인물을 평가하는 한담은 국문장편소설이나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에서 독자가 서사를 더욱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사항이 되고, 앞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는 보충적인 서사가 된다.

인물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짐짓 우스개를 섞어 인물의 단점을 언급하는 한담은 인물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한담을 통해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제시는 앞으로 읽어나갈 서사의 이해를 돕고 이전에 전개되었던 서사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장편 소설의 서사적 진행을 쉽게 이해하고 전 후편 서사의 연속성을 인지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문 구성원의 인물 평가하기의 한담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흥미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 후편의 연작 형태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패턴화된 서술로 자리 잡으면서 서사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한담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증가시키며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 2. 중층적 서술과 다성성(多聲性)의 구현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며 가장은 가장답고 아내는 아내답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가문의 화합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소설군이다. 그러므로 남성 주인공의 대현군자와 영웅호걸적인 면모는 가문의 화합과 번영을 담보하는 주요한 자질이 된다. 이러한 자질은 작품 전반에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각으로 서술되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가문 중심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나 주인공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가문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서술과는 다른 서술의식을 보여준다. 이 한담은 작품 전체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남성 주인공의 대현군자다운 면모나 영웅호걸다운 모습을 조롱하고 격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담은 풍류남아의 이성을 잃은 행동과 대현군자의 명분에 얽매인 경직된 행동은 조롱되거나 격하될 수 있는 문제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풍류남아로 영웅의 기상을 지니고 있거나 이성적이고 단엄한 대현군자의 성품을 지닌 남성 주인공의 입신양명으로 가문이 번영될 수 있다는 가문 중심주의의 의미는 재고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남성 주인공의 대현군자다운 면모와 영웅호걸다운 면모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게 지지되는 것 같지만 주인공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이러한 남성적 자질을 폄하하며 텍스트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한 텍스트 안에서 이질적인 목소리가 공존하게 되어 텍스트의 다성성(多聲性)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표면적 서술의 이면에 새겨진 잠재적 목소리로 텍스트의 다성성(多聲性)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성성은 텍스트 전반에 강화되어 있는 지배담론과 텍스트의 이면에 새겨진 저항담론을 동시에 텍스트에 기입하는 방식인데, 각기 상반되는 두 목소리가 텍스트에 상존하게 한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안에는 당대에 긍정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남성성에 의해 이룩되는 가문 중심주의라는 지배담론과 이 남성성을 긍정적인 가치로만 볼 것인가를 회의하고 주저하는 저항담론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을 읽는 독자는 지배담론의 의미를 강화하는 목소리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담론의 이면에서 또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는 목소리를 발견함으로써 저항담론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며 텍스트의 의미를 한 방향성으로만 읽는 것을 지양하게 된다.

영웅호걸과 대현군자의 가치를 긍정하는 주도적인 목소리가 가문 중심적인 시각을 강화하거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공고하게 한다면 과도한 영웅호걸과 대현군자의 면모를 조롱하는 부차적 목소리는 가문 중심적인 시각을 약화시키거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표면적으로는 가문의 화합과 번영이라는 가문 중심주의를 서술하고 있지만 한담적 대화양상은 가문의 화합과 번영이라는 가문 중심주의의 의미를 재고하게 하고 텍스트의 행간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다만 주도적 목소리는 전경화되어 있고 부차적 목소리는 한담의 형식으로 배경화되어 있어서 그 울림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중층적인 서술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의미의 균열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중층적 서술을 통해 이질적인 목소리를 교직하고 있는 이유는 지배담론에 의해서 배제된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이 17~18세기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이라면, 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당대의 지배담론에 맞서는 저항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것이

다. 다만 저항담론은 텍스트 전반에서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서사적 흐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이고 비유기적인 한담의 형식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 독자층을 중심으로 탐독되었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이러한 담론의 길항적 관계를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17~18세기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에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가문 중심주의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을 강화하지만 한담은 지배담론에서 한 발 비껴 서서 이러한 인식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은 여성 독자층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중층적인 서술을 마련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를 구현하는 서술 기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 3. 보편적인 삶의 단면 제시와 리얼리티의 재현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는 한담에서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인 누이나 매형, 사촌 등 친인척의 전도된 부부 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남편은 당대의 시각에서는 문제적 인물로 이들은 대부분 아내에게 폭 빠져있거나 용렬한 공처가로 아내에게 큰소리치지 못하고 아내의 위력에 눌려 지내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당대에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권위적 남편과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 한담은 공처가인 남편과 아내가 남편보다 상위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코믹한 일화를 시리즈로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한담과 텍스트의 핵심적 사건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며 그래서 중

심적인 서사와의 의미적 긴밀성은 더욱 떨어진다. 그러나 이 한담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장면화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상층 사대부 부부도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리얼리티를 재현하기 위해서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찢찢매는 공처가는 시대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부의 문제를 제시하여 삶의 리얼리티를 재현하며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한담이 반복적으로 장면화되는 것이다.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이나 <소현성록>의 주인공 부부는 한결같이 당대의 상층 사대부가의 모범적인 부부상을 구현하고 있다. 남편은 대현군자나 도덕군자나 영웅호걸로 전형화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숙한 여인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남편은 주로 공자나 맹자, 안희와 같은 성인이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영웅에 비유되고 아내는 주나라 왕실의 비(妃)인 태임과 태사와 같이 덕을 갖춘 여인으로 비유된다. 그래서 <현몽쌍룡기>의 조성의 아내 왕씨나 조무의 아내 금선공주나 <조씨삼대록>의 유현의 아내 강씨나 철생의 부인 후염과 <소현성록>의 소현성의 아내 화씨나 소운성의 아내 명현공주는 투기를 일삼으며 순종적인 부덕(婦德)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모범적인 부부상이 강화되어야 가문의 화합이 담보되고 가문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대록의 성격을 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각 세대마다 이러한 부부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부상은 현실을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부부의 모범적인 부부상만을 반복하게 된다면 서사는 지루하게 스트레오 타입이 되어 흥미는 감소될 여지도 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재

현하는 것은 공처가 남편과 질투하는 아내의 모습일 수 있다. 외입하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내, 다른 여인에게 애정을 쏟는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아내, 아내의 위세에 꿈쩍 못하는 남편은 상층 사대부 부부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담에서 폭로되는 부부의 모습은 상층 사대부가의 또 다른 부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주인공 부부의 상이 사대부가의 당위론적인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한담에서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은 사대부가의 또 다른 현실적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현실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현실태에서 독자는 더욱 공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실과 동일시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여성 주인공의 삶의 방식을 통해 부덕(婦德)과 순종, 우애나 효와 같은 사대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화하여 여성 독자층을 훈계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덕목들이 부지불식간에 여성을 억압적으로 옥죄는 면도 있다. 그러나 사대부 부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한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부부관계를 우스개 형식으로 말하면서 이 억압적 사고를 험겁게 조절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보편적인 삶의 단면을 제시하여 리얼리티를 재현하고 규방 여성에게 덧씌워져 있는 ‘부덕(婦德)을 갖춘 요조숙녀’의 상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의 욕구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에서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여성 독자층은 자기의 삶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소설 속의 한담을 통해 발견하고 실감나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인 <현몽쌍룡기>, <조씨삼대

록>과 <소현성록>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그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 한담적 대화는 주로 가문 구성원의 인물 평가하기와 남성 인물의 과도한 행위 조롱하기,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 노정하기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가문 구성원의 인물을 평가하는 한담은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는 한담은 앞으로 읽어나갈 서사의 이해를 돕는 참조 사항이 되며 이전 서사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독서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게 된다.

남성 인물의 과도한 행위를 조롱하는 한담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표면적 서술의 이면에 새겨진 잠재적 목소리로 텍스트의 다성성(多聲性)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영웅호걸과 대현군자의 가치를 긍정하는 주도적인 목소리가 가문 중심주의적 시각을 강화하거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공고하게 한다면 과도한 영웅호걸과 대현군자의 면모를 조롱하는 부차적 목소리는 가문 중심주의적 시각과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여성 독자층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과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욕구를 중층적으로 서술한 서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는 한담은 사대부가의 공처가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폭로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이 한담은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상층 사대부 부부도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리얼리티를 재현하며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된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주인공 부부의 상이 사대부의 규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한담에서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은 사대부의 또 다른 현실적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현실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을 논의하는 데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문장편소설의 다양한 의미 층위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현몽쌍룡기>, 『장서각소장 고소설 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조씨삼대록>, 서강대 소장본 40권 40책.

<소현성록>, 이화여대 소장본 15권 15책.

### 2. 논저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32집, 2007, pp.69~95.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pp.1~250.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2005, pp.69~98.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43~268.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2005, pp.37~68.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1998, pp.293~327.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pp.7~278.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집, 2006, pp.91~129.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집, 2005, pp.25~52.

ABSTRACT

Aspects and Functions of Chat-style Conversations in Samdaerok of Korean Full-length Novels

Kim, Moon-Hee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aspects and functions of chat-style conversations in 〈Hyeonmongssangryonggi〉, 〈Jossisamdaerok〉 and 〈Sohyeonseongrok〉.

Chats assessing members of a family suggested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members. The chats can become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descriptions to be read from now on, remind of past descriptions, and improve readability.

Chats making a fool of excessive behaviors of male figures realizes polyponics of the texts. The chats ridiculing excessive heroes and men of virtue reveal intention to weaken clan-centered viewpoint and male-centered viewpoint.

Chats talking about various problems among couples representation reality of life by disclosing funny images of a hen-pecked husband of a noble family. The chats are realities showing realistic relationships of couples of noble families.

**Key Words** Samdaerok of Korean full-length novels, chat-style conversation, suggest objective information, readability, layered narrative, polyponics, suggest universal life, representation reality of life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